

## 4 양캠 총학 공약점검

# 서울캠 나름 선방 생활비장학금 복원 헬스장 개선 미완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제52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무빙'은 전체 32개 공약 중 11개(34%)를 이행 또는 수정 이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15개(47%)이다. 나머지 6개(19%) 공약은 코로나19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빙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라진 생활비장학금 원상복원' 공약은 이행이 완료됐다. 서울캠 총학은 "생활비 장학 예산 확보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2020학년도 2학기 말 생활비 장학금 지급과 향후 정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공약인 '후마니타스칼리지 10주년, 이제 변화'에서는 세 가지 세부 공약 중 하나가 완료된 상태다. 이행된 공약은 '학생들이 만드는 배분·자유이수 교과'

로 현재 공모전 심사와 함께 OT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공약인 ▲SW 기초교육 과목 개선 ▲온라인 강의 문제 해결 또한 수정이 행을 목표로 현재진행 중이다. 총학은 "SW 수업 특성에 맞는 강의 평가 문항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강의 문제 해결은 운영 규정과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캠퍼스 생활 개선 내용을 담은 '무빙이 응원하는 대학생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근처 연습실 제휴 할인 ▲대운동장 평탄화 작업 공약이 완료됐다. ▲푸른솔 학생식당 주말 운영 ▲도서관 내 휴게 공간 조성 ▲물품 보관함 마련 ▲연습 시설 리모델링 등의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청운관 헬스장 리모델링 ▲행복기숙사 아름원 카페 24시간 운영 공약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헬스장의 위치가 지하 3층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 대비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원 카페 24시간 운영은 사업주와의 미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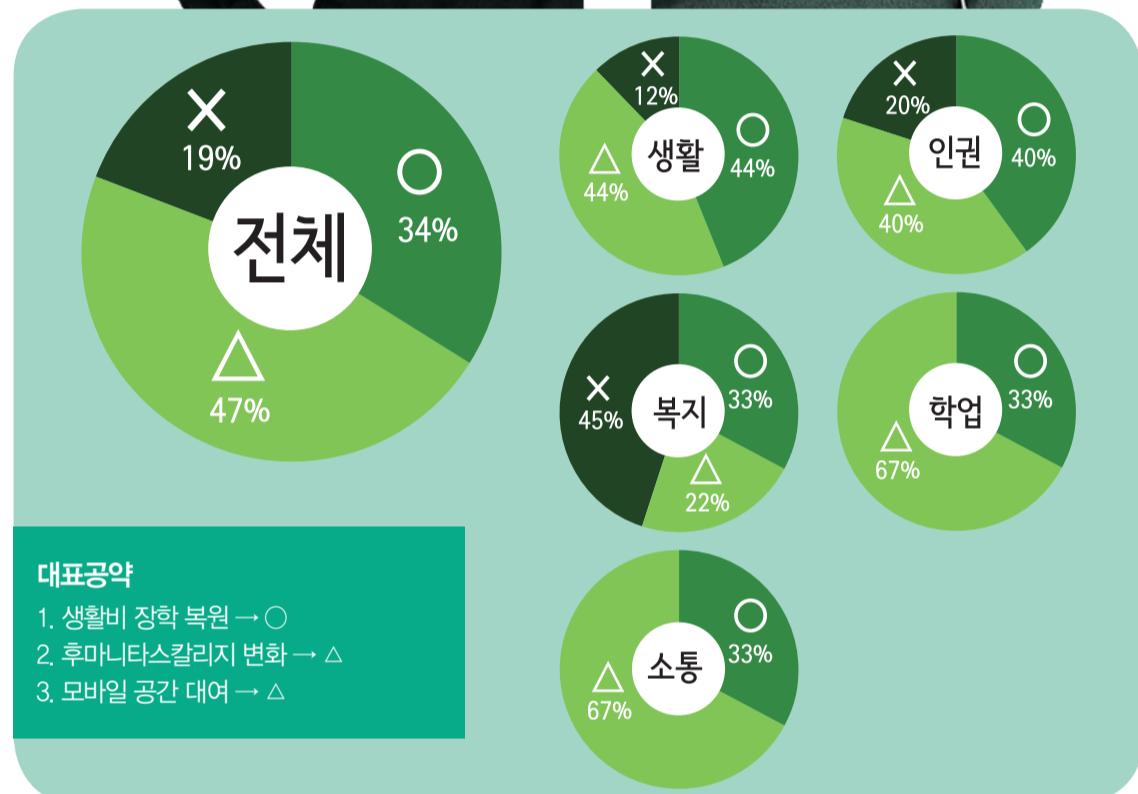
름원 카페는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따로 논의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신 총학은 푸른솔 학생식당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편의 정책인 '무빙이 만드는 편리한 캠퍼스'에서는 세 가지 중 하나의 공약의 실현된 상태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생활 매점 24시간 운영'이다. 하지만 현재 학내 출입 통제로 인해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생식당 모바일 식권 예매'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지 창구 단일화'의 경우에는 '경희톡'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이행될 예정이다.

'무빙의 모바일 민주주의'는 학생자치에 관한 정책이다. 총학은 현재 '열린 총장실 개설' 공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인 공약은 ▲유튜브로 만나는 총학생회 ▲학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 공개 등이다. 하지만 '월 1회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목표였던 기준 계획은 '월 1회 사업보고 카드뉴스 제작'으로 변경됐다. 또 학기당 2회씩 계획했던 사업보고는 1학기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2학기 사업보고는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인권과 관련한 정책인 '모두가 존중받는 경희'에서는 ▲학내, 주변 상가 불법 활동기기 점검 ▲새내기 배움터 지침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경희 인권센터 신설' 공약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선'으로 수정 이행될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현재 국제캠퍼스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2회 인권주간 진행'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취업지원에 관한 정책은 두 가지 모두 현재진행 중이다. 미래인재센터 '취업꿀팁 채널' 개설은 기존 미래인재센터 유튜브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역량관리 플랫폼 '알라딘' 업그레이드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 코로나에 막힌 공약 총학 "아쉬울 따름"

### 양캠퍼스 종합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코로나19는 학생 자치활동에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약을 가져왔다. 임기 중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양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양캠 총학은 공약을 수정 이행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들을 최대한 실천 하려는 모습들을 보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최인성(생물학 2016) 총학생회장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총학생회장

은 "코로나19로 공약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캠 총학 '무빙'은 '강의실과 세미나실 모바일 대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여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올해 안에 공약이 이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제교류처, 쿠디(KHuddy)와 교류해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은 것 또한 공약 이행의 변수로 작용했다. 서울캠 총학의 '학생식당 모바일 식

제 주간 지정 ▲영화제 GV ▲동아리 공연 등의 행사가 취소됐다. '제2회 인권주간 진행'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약들은 '방구석 벚꽃문화제', '온라인 인권주간'과 같은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국제캠 총학 '워쿠맨'은 내·외국인 간 교류를 위해 '국제교류처와 연계'를 통한 국제화 기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여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올해 안에 공약이 이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제교류처, 쿠디(KHuddy)와 교류해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은 것 또한 공약 이행의 변수로 작용했다. 서울캠 총학의 '학생식당 모바일 식